

1880년대 후반 메이지 일본의 전쟁 담론 공간

야마모토 주스케(山本忠輔)의
『일본군비론』(日本軍備論)을 중심으로*

최정훈

1. 서론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은 1894년 6월 8일 자 1면 「사고」(社告)를 통해 “조선의 경보(警報)가 점점 급박해져 암담(暗澹)한 풍설이 바야흐로 경성의 온 하늘을 덮으려고” 하니 “사원 야마모토 주스케(山本忠輔)를 특과”하여 “동학당의 변란은 물론이고 기타 크고 작은 정세라 하더라도 지금보다 한층 정세가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¹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5월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06).

1 「社告」, 『東京朝日新聞』, 1894. 6. 8. 같은 「사고」가 다음날 1면에도 실렸다. 여기서 ‘忠輔’를 ‘다다스케’(ただすけ)가 아닌 ‘주스케’로 읽는 이유는, 당대 신문에서 이 인명의 후리가나(振り仮名)로 “ちうすけ”를 사용한 것을 따랐기 때문이다(예컨대 「社告」, 『東京朝日新聞』, 1894. 6. 15. 참조). 반면 일본의

최정훈(崔正訓)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서양사학과 외교학을 전공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석사과정에 있다. 메이지 전기 주권·국권 담론에 관한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31일)과 청의 아산만 파병(6월 6일)으로 긴박해진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었다. 『아사히신문』의 제1특파원 야마모토 주스케는 1894년 6월 6일 오후 5시에 오사카를 출발하여 10일 오전 1시 인천항에 도착했다.² 이는 청일전쟁기 66개 신문사에서 파견한 114명의 중군기자³ 가운데 가장 빠른 대응이 었다. 일본군 선발대가 6월 6일 오후 출발하여 12일 오후 인천에 도착한 것 에 비견될 정도로 신속한 것이었다.⁴

『도쿄아사히신문』과 『오사카아사히신문』(大坂朝日新聞)은 청일전쟁기 당시 특파원 보도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미디어 전쟁’에서 다른 매체를 압 도하는 취재력을 발휘하는 등 발행부수를 늘리는 성공을 거둔 언론이었다.⁵ 따라서 청일전쟁을 연구할 때 당시의 전쟁 상황뿐 아니라 이 전쟁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도 『아사히신문』은 중요한 참고가 된다. 그중에서도 야 마모토 주스케의 특보는 당시 유명한 기자였던 니시무라 덴슈(西村天因)의 기사와 더불어,⁶ 청일전쟁을 국민에게 체험하게 하고 인식시키는 주요 매개 였다. 나카쓰카 아키라의 지적대로, 이러한 창구의 위력은 7월 23일 경복궁 점령이라는, “일본 공사관의 제안에 근거하여 일본군이 작전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긴 대단히 계획적인 사건”⁷ 조차 조선 측의 도발에서 비롯된 교전 으로 묘사한 『아사히신문』 등의 7월 25일자 보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⁸

대표 도서 검색 사이트(일본 국회도서관, Webcat Plus 등)에서는 ‘山本忠輔’의 이름에 “야마모토 다다 스케”(ヤマモト, タダスケ)라고 발음을 표기하고 있으며(이상 2015년 7월 10일 최종 확인),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나카쓰카 아키라, 박맹수 옮김, 푸른역사, 2002, 122~123쪽)에서도 그의 이름을 “야마모토 타다스케”라고 쓰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야마모토 다다스케’를 주로 사용하는 듯하지 만, 이 글에서는 당대 문헌에 명시된 읽기 방식을 존중하여 ‘야마모토 주스케’로 부르기로 한다.

2 山本忠輔, 『鷄林風雲錄 一 (六月十三日仁川發)』, 『東京朝日新聞』, 1894. 6. 23.

3 参謀本部 編,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戦史』 第8巻, 東京印刷株式會社, 1904, 140쪽.

4 하라다 게이이치, 최석완 옮김, 『청일·러일전쟁』, 어문학사, 2007, 87쪽.

5 大谷正, 『日清戦争』, 中央公論新社, 2014, 154, 165~167쪽. 두 신문은 같은 자본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동일한 기사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다. 大谷正, 『日清戦争』, 162쪽.

6 『아사히신문』은 6월 15일에도 니시무라 덴슈를 인천으로, 니시무라 도키스케(西村時輔)를 시모노세키 (下関)의 바칸(馬関)으로 파견했다. 「社告」, 『東京朝日新聞』, 1894. 6. 15. 같은 「사고」는 이를 뒤 1면에 도 실렸다.

7 나카쓰카 아키라, 박맹수 옮김,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푸른역사, 2002, 86쪽.

8 나카쓰카 아키라,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121~129쪽. 나카쓰카는 이 사건에 대한 7월 25일 의 보도로 『오사카마이니치신문』, 『요로즈초호』와 더불어 『오사카아사히신문』의 기사를 예로 들었으 나,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도쿄아사히신문』에도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東京朝日新聞』,

야마모토의 왜곡된 보도가 당시는 물론 오늘날까지 청일전쟁을 잘못 인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나카쓰카에 따르면 이러한 유력지의 영향력은 궁극적으로 일본 정부의 손아귀 속에서 발휘되었다. 나카쓰카는 청일전쟁 시기 일본 언론은 일본 공사관과 일본군이 조작한 정보에 휘둘렸으며, 이것이 “일본 국민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가능성”을 차단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⁹ 당시 언론은 자신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노력했지만 결국은 실패했고, 이것이 청일전쟁의 진상 파악은 물론 역사의식상의 반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¹⁰

나카쓰카의 이러한 평가에는, 청일전쟁 당시 언론이 국가에 의해 제약당하거나 동조하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렀다는 듯한 인상을 남긴다. 그는 “일본군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보는 기자는 없었다”거나 “일본군의 출병과 그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썼다.¹¹ 이러한 분석은 사실과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도쿄아사히신문』은 6월 8일 자 「사설」에서, 정부에 의한 보도통제에 관하여 “대개 당국자가 이와 같은 일에 관하여 이른바 비밀이라고 해석하는 일이 왕왕 생겨서 지나칠 때가 있다. … 그 해석을 엄정하게 하고 그 보행을 공평하게 하여 진정으로 편파성이나 과불급(過不及)의 폐단에 빠지지 않을 것을 희망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¹² 그러나 야마모토가 서울에서 6월 23일에 보낸 기사에서 “경성에 있는 신문기자 8, 9명이 외교 비밀, 군기 누설, 통신의 재료가 없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지루한 나머지

1894. 7. 25. 이 점에 대해서는 각주 5의 지적을 참조.

9 나카쓰카 아키라,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122쪽. 그에 따르면 경복궁 점령기에 “종군기자들이 일본공사관 또는 일본군의 통제하”에 있었으며 “‘극비’ 계획이었던 왕궁 점령 현장에는 아마 한 사람의 기자도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 일본 정부는 이후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칙령 제134조에 의하여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제를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육군과 해군은 보도를 통제했다. 나카쓰카 아키라,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122, 135, 142~143쪽.

10 나카쓰카 아키라,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143, 157쪽.

11 그는 언론이 정부의 입장을 상대화해서 볼 수 있도록 가능한 경우에도 이것이 “일본군의 실제 행동”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공식보도와 어긋나는 사실을 전달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나카쓰카 아키라,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132~133쪽.

12 「社説」, 『東京朝日新聞』, 1894. 6. 8.

지 술을 마시는 자가 있고 바둑을 두는 자가 있다”¹³라고 썼듯이, 정부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보도할 “재료”조차 얻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마모토가 조선에 도착한 직후 “인천의 통신은 내가 직접 목격한 바가 아니면 실제로 본 사람에게서 들은 사실뿐이어서, 뜬소문은 하나도 취하지 않는다.”¹⁴라고 쓴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에 의한 보도 통제 및 왜곡된 정보 제공에 당시 언론이 취약했다는 분석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나카쓰카의 분석에는 일본의 신문기자 혹은 언론매체라는 행위자가 지녔을 인식의 지평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 정부의 통제에 매여 있거나 정부에 동조했다는 소극적 자세에 주목하는 것만으로는, 당시 언론이 정부의 영향력만으로 환원할 수 없는 독자적 입장을 견지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심지어 언론은 정부의 통제에 속박되기는커녕 경우에 따라 정부의 운신 폭을 제한하기도 했다. 예컨대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는 전쟁 발발 이전을 이렇게 회고했다.

세간에서 공연히 표명된 것은, 사회 범속(凡俗)의 여론이라고 하는, 이른바 약자를 돕고 강자를 꺾는다는 의협론(義俠論)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 나는 본래 조선 내정의 개혁을 정치적 필요 이외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으로 여겼기에, 역시 의협을 정신으로 삼아 십자군을 일으킬 필요를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¹⁵

무쓰는 “조선 내정의 개혁이라는 것은 제일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주안으로 삼는 정도에 그쳐,” 즉 합리적 계산에 의해서 대응책을 마련한 자신과 달리, “정치적 필요보다도 도의적 필요”를 고려하여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 한 여론의 분위기를 비판했다.¹⁶ 이러한 “의협론”, 즉 심정윤리적 대외론은

13 山本忠輔, 「鷄林風雲錄五 (六月十九日京城發)」, 『東京朝日新聞』, 1894. 6. 28.

14 山本忠輔, 「鷄林風雲錄二 (六月十三日仁川發)」, 『東京朝日新聞』, 1894. 6. 23.

15 陸奥宗光, 『伯爵陸奥宗光遺稿』, 岩波書店, 1929, 322쪽.

16 陸奥宗光, 『伯爵陸奥宗光遺稿』, 321~322쪽. 무쓰는 청일 간에 강화조약을 논의하는 동안에도 국민 일반이나 신문에서 현실적 가능성과 이해 득실을 고려하지 않은 강경 대외론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인의(仁義)의 군대를 일으킨다고 하여 거의 성패(成敗)의 수(數)를 도외시” 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던 것이다.¹⁷

무쓰의 비판은 청일전쟁 시기 국민 여론과 언론의 전쟁담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자를 곤혹스럽게 할 정도로 급진적이었을 뿐 아니라,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의 정당화 논리를 폈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나카쓰카의 언론 분석이 놓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배적인 현상의 기저에 깔린 언론의 사상적 독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려면 이들을 피동적으로 규정하거나 이들이 비현실적, 비합리적 대외론을 전개했다고 비판하는 데서 나아가, 그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당대의 여론을 지배적 현상으로서 지탱시킬 수 있었던 내적 논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도쿄아사히신문』이 청일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7월 29일 자 사설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이길 때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패할 때라도 역시 장래의 이익에 속한다”라고 쓴 것은 무쓰가 비판한 비합리적 논리의 일단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에는 “싸움의 상처(創痍)를 입어도 이로 인해 크게 계발되고 자극되고 반성하고 분흥(奮興)하는 것이 곧 장래의 이익을 배태하는 이유”라고 하는 나름의 논리가 깔려 있었다.¹⁸ 이는 『도쿄아사히신문』이 전쟁 전에도 국내적으로 인간 주체(human agents)가 상실한 생명력(vitality)을 회복하는 계기로서 대외적 위기를 긍정한 논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 신문은 6월부터 이미 “인심이 날로 게을러져 변화를 바란 지 이제 오래되었는데 지금 하늘이 주신 이 호기(好機)를 조정 사람은 어찌 크게 활용하지 않는가”¹⁹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인심이 권태하여 내부가 부패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려할 만한 것이다. 이를 각성하고 혁신하는 것은 외사(外事)를 말미암는 것 외에는 없다”²⁰라며 전쟁 위기를 긍정하였다. 나아가 일본이 청과의 싸움에서 우세해지자 “전쟁은 국민이 평상시에 수양한

陸奥宗光, 『伯爵陸奥宗光遺稿』, 446~447, 558~559쪽.

17 陸奥宗光, 『伯爵陸奥宗光遺稿』, 321쪽.

18 「社説 清國の爲にも亦祝を」, 『東京朝日新聞』, 1894. 7. 29.

19 「社説 人心の倦怠と朝鮮の變亂」, 『東京朝日新聞』, 1894. 6. 10.

20 「社説 外事利用」, 『東京朝日新聞』, 1894. 6. 19.

바가 어떠한가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기관(機關)일 뿐 아니라 대자극을 주는 교육적 일대 원동력”²¹이라고 규정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야마모토 주스케는 정보 통제라는 제약에 묶여 있었지만, 주어지는 사실을 받아 적는 것에서 나아가 이러한 『도쿄아사히신문』의 강경한 논조와 공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전개할 줄 알았다. “풍도해(豊島沖)와 성환역(成歡驛)의 해륙양전 승리를 우리나라에서 얻은 것은 필경 군신(軍神)을 위한 희생 제의(血祭)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나아가 북양함대를 분쇄하고 완전히 쫓아내어 베이징의 근거지를 뒤집어 십이분(十二分)의 전승을 우리에게 바치도록 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다.”²²

그렇다면 정책 결정 그룹과 구별되면서도 청일전쟁기에 영향력을 행사한 언론의 고유한 전쟁 논리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나카쓰카 본인도 인정하듯이 “청일전쟁 때의 종군기자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 기자들의 인물상과 그들이 쓴 기사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²³

이 글은 그러한 작업의 하나로,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민간 담론장에서의 전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야마모토 주스케의 『일본군비론』(日本軍備論)을 통해 추적해보려 한다. 여기에서는 이 텍스트의 논리를 당대의 담론 공간의 맥락 속에서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와 나카에 조민(中江兆民) 등 1880년대 군비 확장에 적극적인 글을 발표한 사상가들을 일종의 동시대적 참조체계로 삼아 비교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는 반대로 야마모토를 통해 우에키와 조민 사상의 독특성을 재확인하는 방향으로도 역할할 것이다.

2절에서는 야마모토 주스케의 인적 사항을 종합하여 『일본군비론』이 당대에 어떠한 맥락에 접속되어 있었는지를 재구성할 것이다. 3절에서는 우에키 에모리와의 비교를 통해, 『일본군비론』이 전쟁의 부정적 이미지를 전

21 道土, 「社説戦争は最大教育なり」, 『東京朝日新聞』, 1894. 8. 2.

22 「日清戦闘餘聞(八月六日京城特派員山本忠輔發)」, 『東京朝日新聞』, 1894. 8. 21.

23 나카쓰카 아키라,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133쪽.

제하면서도 어떠한 외적 근거에 의하여 군비론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4절에서는 나카에 조민과의 비교를 통해, 야마모토 주스케가 상비병 폐지론이라는 당대의 유토피아 구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것의 적용을 어떻게 회피했는가를 확인할 것이다. 5절에서는 조민과의 비교를 통해, 야마모토가 역사 발전의 일반 법칙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객관적인 세(勢)의 분석을 통해 군비확대론을 주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1880년대 메이지의 전쟁에 관한 담론에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2. 야마모토 주스케와 『일본군비론』

야마모토 주스케는 메이지의 사상 공간에서 그동안 잊혀온 인물이다. 청일 전쟁기 그가 작성한 보도문이 인용된 연구는 발견되지만, 인물 자체나 전쟁 이전의 저작에 주목한 연구는 필자가 조사해본 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의 생애가 상세히 정리된 자료가 없다면, 그의 저술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재구성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²⁴

야마모토 주스케(山本忠輔)라는 이름의 저자가 저술하거나 편집한 책은 일본 국회도서관의 도서 목록에서 총 9종이 확인된다.²⁵ 각 책의 말미에 있는 서지 정보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야마모토 주스케 지음, 『국위진흥론』(國威振興論): 1885년 6월 저자 서문, 1886년 1월 11일 판권 면허, 3월 19일 출판.
- (2) 야마모토 주스케 지음, 『경관일용영어독학』(警官日用英語獨學): 1886

24 朝日新聞百年史編集委員会, 『朝日新聞社史 明治編』, 朝日新聞社, 1990에도 야마모토 주스케가 청일 전쟁기에 활동한 이외의 정보는 실려 있지 않다.

25 2015년 7월 10일 최종 확인. 다만, 일본 국회도서관의 서지 사항에서 저자 山本忠輔의 발음 표기는 ‘야마모토 다다스케’(ヤマモト タダスケ)로 되어 있다.

년 6월 9일 판권 면허, 1886년 7월 서문, 7월 17일 출판.

- (3) 야마모토 주스케 편집, 『영화문장회화편: 관용·상용·교제용』(英和文章會話篇: 官用・商用・交際用): 1886년 9월 25일 판권 면허, 1887년 1월 작성(刻成).
- (4) 야마모토 주스케 편집, 『영문어학전서: 정칙화역』(英文語學全書: 正則和訳): 1886년 12월 24일 판권 면허, 1887년 3월 출판.
- (5) 야마모토 주스케 지음, 『일본국세론』(日本國勢論): 1887년 12월 출판.
- (6) 야마모토 주스케 지음, 『일본지남자』(日本之男子): 1887년 출판.²⁶
- (7) 야마모토 주스케 지음, 『일본군비론』(日本軍備論): 1888년 1월 저자 서문, 5월 27일 인쇄, 5월 30일 출판.²⁷
- (8) 하시모토 사나이(橋本左内) 지음, 야마모토 주스케 편집, 『계발록』(啓發錄): 1889년 8월 편자 서문, 8월 13일 인쇄, 8월 15일 출판.
- (9) 야마모토 주스케 편집, 『후쿠시마 중좌 원정기요』(福島中佐遠征紀要) 제1~2권: 제1권은 1893년 3월 편자 서문, 4월 2일 출판, 제2권은 6월 14일 인쇄, 6월 19일 발행.

이들 텍스트는 일본에서 영어 학습용 교재[(2)~(4)], 막말 지사 저작의 편집본[(8)], 그리고 군사 문제를 취급한 저작[(1), (7), (9)] 등 범주가 서로 다르다. 그러나 같은 범주에 속하는 책의 구성이나 성격이 흡사하다는 점에서 그 편자 혹은 저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²⁸ 게다가 이 책들

26 (5)~(6)번의 텍스트는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아, 서지사항이 자세히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관한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2015년 7월 10일 최종 확인.

27 이 책의 경우 서지사항에 담긴 인쇄일과 출판일의 월(月), 일(日) 앞의 숫자는 인쇄되어 있지 않으며 붙글씨로 가필되어 있다.

28 영어학습용 교재로 분류되는 책들 간의 유사성에 대해서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경관일용영어독학』은 야마모토가 외국인과 접촉할 일이 많아지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경찰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든 독학 교재다(山本忠輔, 『警官日用英語獨學緒言』, 『警官日用英語獨學』, 山本忠輔, 1886). 본문이 50쪽이 채 안 되는 이 책에는 황족과 귀족, 직명(職名), 외교관직명, 관청, 조약국명, 경관용(警官用) 단어, 통상단어등 6개 주제에 관한 어휘가 수록돼 있으며, 간단한 회화 예문 모음이 실려 있다. 『영문어학전서: 정칙화역』은 분량은 170여 쪽이나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어휘와 회화 표현, 글의 예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초반부에 제시된 어휘의 경우 황족과 귀족, 직명, 외교관직명, 관청, 조약국명 등의 주제에 관한 것으로 『경관일용영어독학』과 중복되는 것이 많다. 『영화문장회화편: 관

이 비슷한 시기에 간행되었으며, 서로 다른 범주의 텍스트조차 책 말미의 서지사항에서 아마모토 주스케를 공히 “가고시마(鹿兒島) 현 사족”으로 소개한다는 점[(1)~(4), (8)]에서 이 동일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 책들 가운데 『국위진흥론』은 아마모토가 1886년에 출간하여 그 시기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 글에서 살펴볼 『일본군비론』은 이를 토대로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국위진흥론』에는 이를 저술했던 시점에 그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 단, 아마모토는 『경관일용독학』의 1886년 7월 서문에서 자신이 “이전에 구마모토(熊本) 현 경찰 본서(本署)에서 봉직하여 영학교수직(英學教授掛)이 되었다”라고 썼다.²⁹ 그런데 『국위진흥론』의 권말 서지사항에는 아마모토가 “가고시마 현 사족”이라고 정확히 쓰여 있지만, 이 책의 표제지에는 이와 달리 “구마모토 아마모토 주스케 지음”이라고 되어 있어 그가 구마모토 현에서 영학교수로 활동한 것이 이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국위진흥론』을 쓰기 시작한 시점은 확정할 수 없으나 본문에 청불전쟁, 갑신정변, 거문도 사건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1884년 12월에서 1885년 4~5월 사이에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으며,³⁰ 이 책의 서문은 1886년 6월에 쓰였다고 되어 있다.³¹ 따라서 아마모토는 늦어도 1885년 봄 이전에 영어를 포함한 영학(英學)에 관심을 지녀온 가고시마의 사족으로, 이 지식을 바탕으로 구마모토의 경찰서에서 영학교수로 종사했을 것이다.

아마모토는 영학교수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교육직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막말에 처형된 후쿠이(福井) 번의 사무라이 하시모토 사나이의 『계발록』 1889년 서문에서 “나 역시 하시모토 씨의 사람됨을 흠모한 지 오

용·상용·교제용』 역시 영어의 초보적 문장과 어휘를 소개하는 책으로, 영어의 동사 변화, 대화문과 서간문의 예시가 함께 편집되어 있다. 이 가운데 『영문어학전서: 정칙화역』의 표제지에는 그의 영문 이름이 “C. Yamamoto”로 적힌 것이 발견된다. 이는 그의 이름이 『아사히신문』 기자 생활을 하기 이전에 주스케(Chusuke)로 읽혔다는 증거다.

29 山本忠輔, 「警官日用英語獨學緒言」.

30 “근래 청불 사건과 조선 사건과 같은 것은 동양 미증유의 대사건이다”, “영국은 백만 파운드를 지출하여 홍콩, 싱가포르, 아덴 등에 포대를 축조하려고 하며 또 조선의 한 섬인 포트 해밀턴을 차용하였다.” 여기서 포트 해밀턴(Port Hamilton)은 거문도를 의미한다. 각각 山本忠輔, 『國威振興論』, 須原鉄二, 54, 122쪽 참조.

31 山本忠輔, 「國威振興論序」, 『國威振興論』, 9쪽.

래되었다. 내가 우연히 후쿠이 현 교사로 봉직하는데 벗인 후지이 고로베(藤井五朗兵衛)가 하시모토 씨의 『계발록』을 보여주었다.”³²라고 쓴 데서 유추할 수 있다. 『후쿠이신문』(福井新聞)의 1888년 8월 31일 자 보도에 따르면, 후쿠이의 세이키소학교(成器小學校)에 영어과가 신설되고 이 과에 가고시마 현 사람 야마모토 주스케가 초빙되었는데,³³ 이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1889년부터 4년간 그의 활동에 관한 정보는 없다. 그러나 『후쿠시마 중좌 원정기요』 제1권의 신문 광고³⁴와 제2권의 표제지³⁵에 보이는 “오사카 아사히신문 기자 야마모토 가쿠레이(山本鶴嶺)”라는 표현에서, 그가 늦어도 1893년에 기자가 되었으며 가쿠레이라는 호를 사용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³⁶

그렇다면 야마모토의 생몰연대는 어떻게 될까?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1894년 6월의 위기 상황에서 일본군과 거의 동시에 조선으로 파견된 제1특파원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출생연도 범위의 추론은 가능하다. 당시 특파원 내지 중군기자로 활동할 수 있으려면 2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1855년경~1875년경에 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야마모토는 다음으로 파견된 두 명의 제2특파원 니시무라 덴슈와 니시무라 도키스케 형제와 비슷한 나이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각각 1865년, 1867년생이므로 야마모토 역시 청일전쟁 시기에 30세 전후였으리라고 추측된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국위진흥론』과 『일본군비론』은 야마모토 주스케라는 가고시마 사족이자 영학자가 20세 초반 전후에 집필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국위진흥론』이 경찰 본서에서 영학(아마도 주로 영어)을 가

32 山本忠輔, 「故橋本佐内啓發錄序」, 山本忠輔 編, 『啓發錄』, 山本忠輔, 1889, 6~7쪽.

33 이 정보는 柳沢芙美子, 「杉田すゝについて: 生立ち・英学への志向・幼稚園教育との関わりで」, 『福井県文書館研究紀要』 11号, 2014, 63쪽의 <표 3>에서 재인용.

34 『東京朝日新聞』, 明治廿六年四月八日, 5면.

35 山本忠輔 編, 『福島中佐遠征紀要』 第一卷, 岡島真七, 1893, 1쪽과 山本忠輔 編, 『福島中佐遠征紀要』 第二卷, 岡島真七, 1893, 1쪽에도 이 이름이 나온다.

36 山本忠輔 編, 「福島中佐遠征紀要自序」, 『福島中佐遠征紀要』 第1卷, 3쪽에는 야마모토가 자신을 “鶴嶺山人”이라고 칭하는 것이 보인다.

르치면서 저술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일본군비론』의 서문이 1888년 1월에 쓰였으므로, 이 글은 1887년 후반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888년 8월 그가 세이키소학교에 부임하기 이전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추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본군비론』 표제지의 다른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제지에는 ‘종삼위(從三位) 백작 가쓰 야스요시(勝安芳) 공(公)’[즉 가쓰 가이슈(勝海舟)]과 ‘종삼위 육군중장 자작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공’이 제자(題字)를, ‘종삼위 자작 아마오카 데쓰타로(山岡鐵太郎) 공’[즉, 아마오카 텃슈(山岡鉄舟)]이 제언(題言)을, ‘하기와라 세이추(荻原西嶠) 거사(居士)’가 변언(辨言)을, ‘일보(日報) 사장 후쿠지 겐이치로(福地源一郎)’가 서언을 썼다고 되어 있다. 『일본군비론』이 대외 문제와 관련된 직책에 종사한 정부의 전현직 관료(가쓰, 미우라, 아마오카), 한 세대 위의 유학자(하기와라), 당시 유명 저널리스트(후쿠지)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준다. 이 책의 원형이 되는 『국위진흥론』에 당시 가고시마 현 지사였던 와타나베 지아키(渡辺千秋)의 제자(題字)가 실린 것에 비하면, 몇 년 사이 아마모토의 담론은 당시 정계와 언론계 거물의 눈에 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얻었음을 암시한다. 그가 1893년에 간행한 『후쿠시마 중좌 원정기요』에서도 ‘마쓰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 공’과 ‘종삼 위훈 2등 남작 육군중장 구로카와 미치노리(黒川通軌) 공’의 제사(題辭)와 유명 저널리스트 ‘니시무라 텐슈 선생’의 글, 국권론적 종교연구가 나카니시 우시오(中西牛郎)의 서문을 받은 것은 이러한 영향력이 이후에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일전쟁 전야에 ‘최전선’에서 속보를 전하기 시작한 『아사히신문』의 제1특파원은 이미 1880년대 후반부터 담론장에서 강한 힘을 키워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모토는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나이에 어떻게 이토록 강력한 담론 권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 다음 절부터는, 그가 기존의 담론 공간에 접속됨으로써 기존의 논리에 제약 당하기도 하고 이를 재생산하기도 하면서 다른 담론과 경쟁한 과정을 살필 것이다.

3. 군사 문제의 부정적 이미지와 그 극복

야마모토 주스케의 『일본군비론』은 육해군의 군비 확대를 주장하고, 중국과의 전쟁을 가상하여 내륙을 공략해야 한다³⁷는 강경한 정책적 결론이 이 책의 핵심 논지 중 하나다.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이 책은 “동양 여러 나라의 현재의 형세, 일본과 지나(支那)의 관계로부터 이후 불행하게도 전쟁의 단서를 열 때를 상상하되 함풍(咸豐) 10년 영불 연합군이 지나를 공격했을 때의 모습 및 선년(先年) 지나가 프랑스와 싸웠을 때³⁸ 유럽 여러 나라와 관계의 예를 끌어와 지나의 처치 및 일본의 전략을 서술하여, 마침내 그 승패가 귀착하는 바 및 현재 일본 군비가 가지런하지 않은 점으로부터 군비 확장의 필요를 논술한 것이다.”³⁹ 흥미로운 점은 야마모토의 이러한 공세적 결론이 전쟁과 군비를 부정적으로 보는 계몽주의 사상의 자장과 접속되어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임오군란(1882)을 계기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県有朋)와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가 가상적국인 청에 대응하기 위한 육해군 확장론을 주장한 이래, 일본의 1880년대는 군비 확장의 시대가 되었다.⁴⁰ 1882년에 일반 회계 세출의 약 17%를 차지하던 군사비가 1887~1888년에는 약 28%까지 증가하였다.⁴¹ 이와 맞물려 갑신정변(1884)과 청불전쟁(1884~1885), 거문도사건(1885~1887)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는 청과 러시아로부터의 위기론이 증대했다. 그러나 민간의 담론장에서는 국제정치적 위기 상황에 의한 정부의 군비 확장 정책이라는 객관적 상황을 주어진 것으로 당연시하기보다는, 여전히 이를 정당화하거나 반대해야 하는 사상적 과제로 간주했다.

야마모토가 자신의 정책론은 물론 전쟁과 군대 문제를 논의하려는 것

37 山本忠輔, 『日本軍備論』, 中島智教, 1888, 57~58쪽.

38 각각 1860년의 제2차 아편전쟁과 1884~1885년의 청불전쟁을 말한다.

39 山本忠輔, 「日本軍備論緒言」, 『日本軍備論』, 7쪽.

40 吉田裕, 「『國民皆兵』理念と徴兵制」, 由井正臣·藤原彰·吉田裕 校主, 『軍隊士日本近代思想大系 4』, 岩波書店, 457쪽.

41 吉田裕, 「『國民皆兵』理念と徴兵制」, 458쪽.

조차 변론해야 할 행위로 간주한 것은 이 때문이다. 켄틴 스키너(Quentin Skinner)가 지적하듯이, “사람이 정당화하고자 하려는 내용은, 현존하는 규범적 원칙하에서 설득력 있게 취하려는 행동의 경로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설령 공언되는 원칙(professed principles)이 그 사람의 동기로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원칙은 사람이 성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행동의 향방을 형성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⁴²

야마모토는 자신의 저서가 당대에 유통되는 강한 반론에 부딪힐 것을 예상했다. 이때 그가 택한 글쓰기 전략은, 자신의 글이 예상 반론과도 몇 가지 전제를 공유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전제가 적용되는 상황을 달리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독자의 반대를 미리 계산한 채 진행된다는 점에서, 직관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결론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논리적으로는 설득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야마모토의 발화 행위의 폭을 제한하면서도, 동시에 발화의 논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 당대 담론장의 경쟁적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일본군비론』의 「서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손자(孫子)가 말하기를 “전쟁(兵)은 나라의 권위이며 권위를 떨칠 때는 전쟁(兵)이 그친다”라고 하였으니, 지당하도다. 내가 군사 문제(兵)를 이야기하는 것도 감히 전쟁(戰)을 좋아해서가 아니며, 단지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상비병(常備兵) 해산과 같은 것은 내가 가장 그것을 희망한다. 그러나[수백 세기 후에는 이를 알 수 없으니]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상비병 해산설과 같은 것은 입으로 외칠 수 없으며 실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능히 이를 안다. 우선 오늘날에는 병비(兵備)를 엄히 하고 무력(武力)으로 천하의 태평을 지킬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과 같은 일개 소국은 병력으로 국위를 떨쳐 일으키고, 이로써 강국(強國)의 능욕을 막고 적으로 하여금 함부로 국토를 능히 범하지 못

42 Quentin Skinner, *Liberty before Liber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 105. 유사한 지적으로 사카이 데쓰야, 장인성 옮김, 『근대일본의 국제질서론』, 연암서가, 2010, 300쪽 참조.

하게 한다. 전쟁[兵]은 천하의 흉사(凶事)이며 참독(慘毒)이다. 누구든 이를 좋아하는 자가 있겠는가? 손자도 이를 경계하여 말하기를, “전쟁[兵]은 국가의 대사(大事)이며 사생(死生)의 장소이며 존망의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⁴³ 따라서 군대[兵]를 잘 사용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군대를 꺾어서 싸우지 않는다. 또 말하지 않는가? “백전백승은 선(善) 중의 선(善)이 아니며, 싸우지 않고서도 이기는 것이 선 중의 선”이라고. 이것은 모두 군대[兵]가 흉기여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음을 경계한 격언이다. 내가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 역시 이 뜻 밖에 있지 않다. 전쟁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⁴⁴

이 글에서 야마모토는 독자에 의해 자신의 주장이 다음과 같은 두 입장으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부정한다. 이 입장이란 첫째, “전쟁을 좋아하”는 것과 둘째, “상비병 해산”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려는 것을 가리킨다. 두 번째 입장에 관한 분석은 4절에서 다루고, 이 절에서는 야마모토가 첫 번째 입장을 부정하면서도 군비론을 전개하는 방식에 주목하려 한다.

야마모토가 『도덕경』(道德經)과 『한서』(漢書)에 따라 인정하는 바는 “전쟁[兵]은 천하의 흉사이며 참독”이며 “군대[兵]가 흉기”라는 것이다.⁴⁵ 전쟁과 군대는 부정적인 대상이므로 이를 좋아하는 입장은 그 자체로 이미 도덕적이지 않다. 서문의 이러한 언급은 그가 이 책의 다른 곳에서 “아아, 군대[兵]는 흉기다. 전쟁은 천하의 참독이다. 누구든 이것을 좋아하는 자가 있겠

43 김원중에 따르면 『손자병법』 첫머리의 병(兵)을 “군대와 군사(軍事) 등 제반의 일을 두루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으나, 이 문장의 병(兵)은 대개 전쟁으로 해석된다. 손자, 김원중 옮김, 『손자병법』, 글항아리, 2011, 35쪽, 각주 4. Sun-Tzu, trans. Roger T. Ames, *The Art of Warfare*, New York: Random House Publishing Group, 2010, p. 103에서도 이를 “War”로 번역했으며, 이 책의 p. 283에 관련된 설명이 있다. 그러나 야마모토는 이 인용문에서 병(兵)이라는 표현을 전쟁이란 의미에 국한시키지 않고 군대나 군사(軍事) 전반을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번역했다.

44 山本忠輔, 『日本軍備論緒言』, 1~2쪽.

45 “兵者 不祥之器 非君子之器 不得已而用之 恬淡爲上 勝而不美” 老子, 『道德經』; “兵者凶事 一方有急 四面皆從” 『漢書』.

는가. 문명의 군자가 깊이 꺼리는 바다.”⁴⁶라고 하여 호전적 자세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데서도 반복된다. 그에게 전쟁이라는 행위는 외부의 도덕적 근거를 끌어옴으로써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에게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중간 고리를 제시하는 것이 과제였다.

야마모토가 인용하는 중국 고전의 구절은, 그의 논의가 전쟁과 군비 확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당대의 분위기 속에서 숨 쉰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예컨대 군사 문제에 관한 상투적 이미지는 같은 해인 1888년 12월 23일 우에키 에모리가 「징병령 개정안」에서 “군대란 것은 흥기이며, 전투는 상스럽지 않다. 군대를 어찌 멋대로 가지고 놀 수 있겠는가. 군대가 많은 것을 어찌 마음대로 좋아하겠는가.”⁴⁷라고 쓴 데서도 반복된다.

그러나 깊이 검토해보면, 야마모토가 당대의 상투어를 반복하여 자신의 글을 담론 공간 내부의 반대론과 접속시키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단절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야마모토의 『노자』 인용은 당대 논설의 공통분모를 표시하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논설들 간의 차이점을 더듬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야마모토와 우에키가 공유하는 전쟁과 군대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는 흡사한 고전적 용례에 의하여 표현되지만, 이 이미지를 뒷받침하는 사상적 전제는 두 사람에게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에키는 1872년 천부인권론의 논리를 끌어와 「전쟁은 하늘에 대하여 대죄(大罪)가 되는 일이 섞여 있으니 만국통일의 회소(會所)가 없어서는 안 된다」(戰ハ天二對シテ大罪アルコト雜ヘタリ万国統一ノ會所ナカルベカラザルコト)에서 전쟁을 “흥사”로 보는 이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전쟁이 하늘에 대하여 대죄가 되는 것은, 전쟁이 반드시 천지 간에 귀하고 게다가 존엄(靈)한 인명을 해치기 때문이다. 사람이란 용모와 풍격(風格)은 만국에서

46 山本忠輔, 『日本軍備論』, 110쪽.

47 植木枝盛, 「徵兵令改正案」, 家永三郎 外編, 『植木枝盛全集』 第5卷, 岩波書店, 1990, 260~262쪽.

차이가 없지 않으나, 똑같이 귀하고 존엄한 양지(良知)와 양능(良能)을 가진 천지 간의 동일한 생물이다. … 그러나 사람이 이미 무리가 많아지거나 폭행을 하여 해를 입히고, 강자는 약자를 확대하고 큰 것은 작은 것을 억누르니, 권리와 의무가 공히 행해지지 않고, 새로 살리고 새로 기르는 도(道)가 퇴폐해져 양지와 양능이 매몰되며, 인생의 행복을 능히 향유하지 못한다. … 위에서 이른바 사람은 천지 간에 귀하고 존엄하니,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라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사가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사람을 보내 전쟁을 하거나 죽거나 상처 입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쟁이 흉사로서 하늘에 대해 큰 죄가 있는 이유다.⁴⁸

여기에서 보듯이 우에키 에모리의 입장에서 정치적 (부)정의(political (in) justice)를 판단할 때 근본적으로 전제되는 기준은 “천지 간에 귀하고 게다가 존엄한 인명,” 즉 인간의 존엄성이다. 우에키가 보기에 정치적 당위는 정치 외적인, 혹은 정치에 선행하는 다른 당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인간의 존엄성은 “용모와 풍격”과 달리 “양지와 양능”이라는 태생적 속성⁴⁹에 의하여 보장되는바, 국적과 무관하게 보편적이고 동일하게(“똑같이 귀하고 존엄한 … 천지 간의 동일한 생물”) 지니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우에키는 전쟁이 “권리와 의무”의 시행을 방해한다고 지적하여, 전쟁이 정치적 존재로서의 인간 주체를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비판은 정치의 붕괴가 궁극적으로 “인생의 행복을 능히 향유”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에서 제기되었다. 우에키는 “우리를 위하여 나라가 있는 것”이라고 하여 국가를 그 자체로 정당성을 내포한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상위의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수단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야마모토가 전쟁을 비판하는 전제에는 이와 달리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

48 植木枝盛, 「戦ハ天二対シテ大罪アルコト雜ヘタリ万国統一ノ会所ナカルベカラザルコト」, 家永三郎 外編, 『植木枝盛全集』第3巻, 岩波書店, 1990, 1~2쪽.

49 “孟子 曰人之所不學而能者 其良能也 所不慮而知者 其良知也” 『孟子』; “良者 本然之善也. 程子曰 知良能皆無所由 乃出於天 不繫於人.” 『孟子集註』.

이라는 전제가 결락되어 있다. 그는 앞서 인용한 「서문」에서 일본이 “병비”와 “무력,” “병력”을 갖추는 부정적 행위를 정당화할 상위의 근거로서 “천하의 태평”을 수호하고, “국위를 떨쳐 일으”키며, “강국의 능욕”과 “국토”의 유린을 방어하는 것을 들었다. 아마모토는 우에키와 같이 국가를 넘어서는 외부 가치가 아니라, 국가 자체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이에 의거하여 정치적 (부)정의를 판별했다. 이 때문에, “천하의 태평”이라는 이상조차 국가를 넘어서는 상위의 질서가 아니라 국가를 단위로 하는 역학관계 속의 질서로서만 표상되었다. 아마모토는 국가의 영토적 통합성(territorial integrity)과 국제적 위신에 각별히 주목하여, 국가 권력을 국가 바깥과의 관계 속에서만 파악했다.

이는 우에키가 초기의 자연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비교적 독자적 사상을 전개한 1880년대의 논설에서도, 군대 문제를 국제정치와 연관 짓기보다 인민의 자유에 영향을 주는 내치(內治)와 관련시킨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우에키는 1881년 2월 25일 「군대의 큰 뜻은 국헌을 호위하는 데에 있다」(兵ノ大旨ハ國憲ヲ護衛スルニ在リ)에서 “군대에서 국헌을 호위하지 않으면 군대가 없느니만도 못하다”⁵⁰라고 경고할 정도로 군대가 자의적 국내 정치와 결합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1884년 5월 11일 「군대의 본의를 논한다」(兵ノ本意ヲ論ズ)에서도 전제정치에서의 군대를 “인민에게는 호랑이와 이리”⁵¹가 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고, 군대가 건국의 취지에 맞게 인민을 보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대의 직분은 첫째, 외적을 막아 인민을 보호하고, 둘째, 국내의 적을 진압하고 평정하여 인민의

50 植木枝盛, 「兵ノ大旨ハ國憲ヲ護衛スルニ在リ」, 家永三郎 外編, 『植木枝盛全集』第3卷, 216쪽. 같은 글에서 그는 역사 속에서 군대와 전제정의 긴밀한 관계를 이렇게 지적했다. “군대가 국가에서 정부의 전제를 도와 정부가 포학을 달성하게 하는 것은 차마 모두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대체로 고금 각국에서 자의적이고 포악한 군주나 재상 모두 정부의 나쁜 학정과 비도(非道)를 행하여 그 위세를 마음대로 부리고 그 힘을 떨친 경우는 모두 군대의 힘을 사용하고 이를 기계로 삼고 이빨로 삼지 않은 것이 드무니 슬피하지 않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가. 특히 상비병과 같은 것은 정부의 기계가 되기 가장 쉬우니, 전제(專制)를 돕고 나쁜 학정을 따르는 일이 상당히 많으니 그 폐해가 큰 것이 실로 심하다”라고 하였다. 植木枝盛, 「兵ノ大旨ハ國憲ヲ護衛スルニ在リ」, 219쪽.

51 植木枝盛, 「兵ノ本意ヲ論ズ」, 家永三郎 外編, 『植木枝盛全集』第4卷, 岩波書店, 1990, 116쪽.

사회를 보호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⁵² 우에키가 「국권이라는 두 글자」(國權の二字)에서도 “원래 인민이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주로 자유를 보전하고 권리를 확고히 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외국침구(外國侵寇)라는 네 글자를 인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예리한 무기로 삼고, 국권이라는 두 글자를 민권을 가리는 기지(奇智)”로 여기는 비스마르크를 비판한 것은 1887년 4월 20일이다.⁵³ 1880년대 후반까지 일관된 군비에 대한 그의 부정적 이미지에는 인민과 국내 사회에 대한 자의적 폭력의 잠재성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비교한다면 야마모토가 군비 증강을 주창한 『일본군비론』의 다른 대목에서,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인민의 행복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본의 영광만을 강조한 점이 두드러진다.

일본 해군의 쇄퇴를 바로잡아 동양 해상의 권(權)을 장악할 정도로 강성하지 않으면 동양의 영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름은 있으나 실질은 없고, 우리 인민은 배개를 높이 하여 편히 잘 때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곧 우리 동포형제, 일본 인민 된 자는 점점 협심하고 진력하여 내부의 문명부강을 도모하고 만국에 둘도 없는 왜혼(倭魂)을 갈고 닦아 향후 도래할 세계에 이르는 옥일(旭日)의 국기를 휘날릴 것이다. 오래도록 일월(日月)과 함께 이에 그 빛을 다투고 멀리는 서양 여러 나라 위에 나아가 거닐고 달릴 수 있도록 기원하지 않겠는가. 장차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⁵⁴

우에키에게는 군대가 “인민의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데에 반하여, 야마모토에게는 “문명부강을 도모”함으로써 군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민이 존재한다. 야마모토가 만약 인민이라는 개념에서 군비를 정당화하려 한다면, 그것은 군비가 인민이 이미 누리는 자유와 행복을 지키기 때

52 植木枝盛, 「兵ノ本意ヲ論ズ」, 118~119쪽.

53 植木枝盛, 「國權の二字」, 家永三郎 外編, 『植木枝盛全集』 第5卷, 84쪽.

54 山本忠輔, 『日本軍備論』, 60쪽.

문이 아니라 쇠약한 생명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마모토는 다른 곳에서 중국의 “국세(國勢)의 쇠약함이 점점 진흥되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외방(外邦)에서 받아 태연하게 또 그 잘못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인민의 무기(無氣)함과 무력(無力)함, 진취의 영려(英慮)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⁵⁵ 따라서 “오늘날 지나(支那) 제국을 위하여 모의하는 바는 마땅히 인민의 기풍을 일변”하는 혁신이 있어야 하고, “진실로 인민 모두가 이와 같지 않으면 어찌 능히 각국과 대립하여 거닐고 달릴 수 있겠는가. 결코 대등한 국위를 떨쳐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⁵⁶ 아마모토는 일본 국민에 대해서도 “나태하고 연약함으로써 독립국의 면목에 대하여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굽어보아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며 불요불굴(不撓不屈)의 기상을 갖출 것을 요청했다.⁵⁷

『일본군비론』이 이와 같이 담론장 내에서 군비와 전쟁의 정당성을 관철시키려는 모습은 1878년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통속국권론」(通俗國權論)에서 수행하려 한 작업의 재판(再版)이라고 할 수 있다. 후쿠자와는 이 책에서 “내가 주의(主義)로 삼는 것은, 전쟁을 주장하여 전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전쟁을 잊지 않는 것뿐이다.”⁵⁸라는 입장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는 “대외 전쟁(外戰)의 거행은 우리의 자손 백 년 뒤에나 있을 법하다고 하여, 심려의 빛이 없는 것 같”은 극단적 낙관론을 비판하되, “외교의 곤란은 결국 싸우지 않으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어기(語氣)가 대단히 극렬한” 강경론과도 거리를 두려고 했다.

『통속국권론』은 “국내에서 민권을 주장하는 것은, 외국에 대해서 국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다. … 일본에서는 외국의 교제(交際)가 있지 않으면 민권

55 山本忠輔, 『日本軍備論』, 19쪽.

56 山本忠輔, 『日本軍備論』, 19쪽.

57 山本忠輔, 『日本軍備論』, 108쪽.

58 福澤諭吉, 「通俗國權論」, 富田正文·土橋俊一 編, 『福澤諭吉全集』第4卷, 岩波書店, 1970, 643쪽.

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증거다.”⁵⁹라고 하여, 국가를 위하여 인민에게 권리를 준다는 논리를 전개한 적이 있었다. 또, 후쿠자와는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국내 행위자의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당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쟁이 인심을 감동(感動)하여 오랜 세월 지속하는 힘은 강대한 것이라고 할 만하다. 따라서 지금 서양의 제국과 대립하여 우리 인민의 보국심을 진흥하고자 하는 기술로서는 그들과 교전하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⁶⁰

이러한 주장은 당대 담론 공간에서 강한 반론에 부딪혔다. 도사(土佐)의 민권운동가인 사카모토 나오히로(坂本直寛)는 「통속국권론을 읽다」(讀通俗國權論)에서 “외국에 대하여 국권을 확장하는 것은 그런(민권을 지킨—인용자) 다음의 일이다. 따라서, 설령 외국의 교제가 없다 해도, 외국군의 침입이 없다 해도, 민권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⁶¹라고 썼다. 우에키 에모리 역시 “민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은 민권을 확장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국권을 확장하는 것 역시 민권을 위해서 이를 확장할 뿐이다.”⁶²라며 후쿠자와의 정당화 논리를 비판했다.

야마모토가 이미 10년 전에 제출된 후쿠자와의 논리를 재생산한 것은, 담론장 안에서 군비확장에 대한 반대론이 여전히 유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마모토는 여러 거물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전쟁을 국권의 수호와 행위자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논리로 정당화하는 이 담론을 지켜낼 수 있었다. 서론에서 본, 청일전쟁기에 무쓰 무네타미쓰를 곤혹스럽게 한 전쟁에 대한 비합리적 논리는 바로 이러한 재생산에 의해 지켜질 수 있었다.

59 福澤諭吉, 「通俗國權論」, 603쪽.

60 福澤諭吉, 「通俗國權論」, 641쪽.

61 坂本直寛, 「讀通俗國權論」, 『大阪新聞』 1879년 11월 4일. 松岡傳一, 『「自由新聞」を読む: 自由党にとっての自由民権運動』, 名古屋: ユニテ, 1992, 11~12쪽에서 재인용.

62 『愛國新誌』 1880년 11월 12일~12월 5일. 松岡傳一, 『「自由新聞」を読む: 自由党にとっての自由民権運動』, 12쪽에서 재인용. 후쿠자와에 대한 이 비판은 植木枝盛, 「國權の二字」, 84쪽에서 반복된다.

4. 상비병과 전쟁의 폐지라는 유토피아와 그 극복

야마모토가 『일본군비론』을 상비병 폐지에 대한 근본적 반대론으로 읽히지 않기를 당부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야마모토는 “상비병 해산과 같은 것은 내가 가장 그것을 희망한다.”⁶³라고 하여, 오히려 이상(理想)으로서 이러한 구상이 자신의 논의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절에서는 야마모토의 저서가, 전쟁 자체의 폐기를 위하여 제시된 군대 폐지론에 관한 담론들과 어떤 식으로 접속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상비병 폐지론이 정당한 논의라면, 야마모토가 이 안의 시행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왜인가? 그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수백 세기 후에는 이를 알 수 없으나)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상비병 해산결과 같은 것은 입으로 외칠 수 없으며 실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능히 이를 알며 ...⁶⁴

야마모토가 여기서 취하는 글쓰기 전략은 자신이 사는 시대의 예외성을 입증함으로써, 당면 현실에 필요한 정책론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는 “수백 세기 후에는” 상비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오늘날의 세계”는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시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야마모토는 시대적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문명의 힘으로 능히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고 평화를 보호하지 못한다. 오로지 병력을 가지고 그것을 보호할 뿐이다. 만약 만국중재강화협회(萬國仲裁媾和協會)가 설립되는 일이 있어서 유럽 각국이 상비군을 폐하는 법을 의논한다면 좋을 것이다. 이 훌륭한 일로 세계의 여론을 환기하여 마침내 완

63 山本忠輔, 「日本軍備論緒言」, 1쪽.

64 山本忠輔, 「日本軍備論緒言」, 1쪽.

전히 이것을 허락하고 행하는 데에 이른다면, 전투, 살벌, 유혈의 참독(慘毒)을 면할 것이니 천하 인민의 행복이 그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것은 진정한 문명이니, 나의 희망 역시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시운(時運)이 아직 이 문명의 영역에 도달하지 않은 현세계에서는 역시 그러한 고려가 없을 수 없다. 몰트케는 말했다. “만국의 병비(兵備)를 해체하는 것은 후세에 바랄 만하지만 그것을 오늘날에 행할 수는 없다. 또, 유럽의 태평은 병력으로 그것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 상비군 해산의 효과는 내가 능히 예기(豫期)할 수 없다”라고.⁶⁵

위의 인용문에서 아마모토는 자기 시대에는 국제적 차원에서 “문명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군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문명의 힘”이란 평화 자체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수단이며, “병력”과 대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비폭력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문명의 힘,” 즉 비폭력에 의해 평화를 만드는 시대를 “진정한 문명”이라고 부름으로써, 그는 당대를 “이 문명의 영역”이라는 이상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시대로 상대화하고 비판한다. 여기서 그는 “시운”이라는 말로 자기 시대의 특수성을 나타내었다.

계몽사상의 상투적인 군대 폐지 혹은 전쟁 폐지론에 관한 가장 극단적 표상은 나카에 조민이 1887년 『삼취인경륜문답』(三醉人經綸問答)에서 양학신사의 입을 빌려 말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당대 문명이 국제관계의 차원에서 떠는 불완전성은 조민의 양학신사도 공유하는 전제였다. “인간 대 인간 으로서는文明생활을 하고, 가족 대 가족 으로서는 文明의 平安을 즐깁니다. 하지만 인간의 집합인 인민 대 인민 으로서는 야만스런 생활을 하고, 가족의 집합인 국가 대 국가 으로서는 야만스런 불안정함에 놓여 있습니다.”⁶⁶ 양학신사의 독특함은 현실에 대한 이러한 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문

65 山本忠輔, 『日本軍備論』, 110쪽. 원문에는 이 인용문 전체에 강조점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했다.

66 나카에 조민,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팀 옮김, 『삼취인경륜문답』, 소명출판, 2005, 82쪽.

명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군비를 철폐하도록 요청한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왜 그대들의 대포를 깨부수지 않는 것입니까? 그대들의 강철 군함을 불살라 버리지 않느냐 말입니다. ... 지구상의 많은 강대국들이야말로 모두 겁쟁이들이어서, 서로 간에 두려워하며 군대를 양성하고 군함을 늘어세워 오히려 위협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 약소국이 자발적으로 단호히 군대를 철수하고 군함을 해산하여 평안을 선택할 기회가 아닙니까?⁶⁷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본이 군비를 철폐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약점을 노출시켜 화자의 한 사람인 호걸군의 비웃음을 사게 된다.⁶⁸ 심지어 이 작품에서 조민 본인의 입장에 가장 근접한 남해선생의 평가는 양학신사의 논의가 “아직 세상에서 실현되지 않은 눈부신 사상적 서운(瑞雲)”이며 “미래를 향한 길조지만 아득하게 멀리 내다보며 즐기면 그뿐”으로 “현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비판했다.⁶⁹ 남해선생은 양학선생으로 대표되는 유토피아주의자의 논의를 “서운”이자 “길조”로 높이 평가하고, 그것이 현재를 상대화해서 보게 만드는 긍정적 기능을 지닌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양학신사의 이러한 주장은 어디까지나 즐거움의 대상으로서만 쓰임을 인정받을 뿐, 당면 현실을 위한 실천적 참조 기능은 가지지 못한다.⁷⁰

양학신사의 무저항적 평화주의에 대해서는, 전후 일본의 평화헌법 9조

67 나카에 초민, 『삼취인경륜문답』, 82, 85쪽.

68 나카에 초민, 『삼취인경륜문답』, 87쪽.

69 나카에 초민, 『삼취인경륜문답』, 125쪽.

70 고전적 연구인 宮村治雄, 『開國經驗の思想史: 兆民と時代精神』, 東京大学出版会, 1996, 140~141쪽에서도 조민 본인의 입장을 양학신사의 논리와 구별하고, 심지어는 이에 비판적인 것으로 보았다. 비교적 최근 연구인 山田博雄, 『中江兆民翻譯の思想』,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9, 172, 217쪽에서도 조민의 다른 저술인 『민약역해』(民約訳解)나 「스위스」(瑞西国) 등에 나타난 조민의 전쟁관은 양학신사와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와 공명하는 측면을 발견하고 이를 높이 평가하거나, 그 안에서 나카에 조민의 사상이 반영돼 있다고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⁷¹ 이러한 평가가 현대 일본사에 주는 시사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해석으로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삼취인경륜문답』에서 양학신사의 평화론에 치중된 높은 평가는, 정작 조민이 『삼취인경륜문답』에서 내린 종합적 결론과 상반된다는 측면을 간과한다. 오히려 남해선생이 제시하는 『삼취인경륜문답』의 결론은 계몽사상에서 상정하는 것과 같이 일반 이론에 따른 유토피아주의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것이었다. 남해선생은 “진화의 신”의 진로가 “신사군이 말하듯이 우리들 인간의 기하학(幾何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선 코스를 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여 단선적 발전의 필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⁷² 그는 진화의 신이 “그때 그 장소에서 결코 실행할 수 없는 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⁷³을 싫어한다고 하여 국가들의 발전 경로의 보편성 역시 부정했다.⁷⁴ 이를 감안하지 않고 “만약 우리들 인간 따위가 진화신을 선도(先導)하고자 한다면 어떤 화를 입을지 예측조차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그 뒤를 따라서 걸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⁷⁵

그렇다면 양학신사의 논의를 『삼취인경륜문답』에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군비론』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한 한 가지 실마리다. 앞에서 보았듯이 아마모토는 상비군의 궁극적 철폐론에 대해 긍정하되, 이를 현실에서 이행할 수 없다는 유보론을 입증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았다. 이

71 아마무로 신이치, 박동성 옮김, 『헌법 9조의 사상수맥』, 동북아역사재단, 2010, 156~165쪽; 松岡傳一, 『『自由新聞』を読む: 自由党としての自由民権運動』, 268쪽 등.

72 나카에 초민, 『삼취인경륜문답』, 125쪽.

73 나카에 초민, 『삼취인경륜문답』, 128쪽.

74 이러한 진술도 보라. “신사군, 자네는 진화의 신은 입헌이나 민주의 제도를 사랑하고 전체제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터키나 페르시아에는 진화의 신이 없다는 말인가? 또 진화의 신은 생육하는 인(仁)을 좋아하고 살육하는 폭력을 싫어한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항우(項羽)가 조나라의 항복한 병사들을 40만 명이나 생매장했을 때 당시 진화의 신은 없었던 것일까?”

봉건제 시대에는 봉건을 좋아하고, 군현제 시대에는 군현을 좋아하고, 쇄국세상에서는 쇄국을 기뻐하고, 무역 세상에서는 무역을 기뻐하고, 보리밭을 즐기기가 싶으면 비프스테이크를 즐기고, 탁주를 즐기기가 싶으면 포도주를 즐기고, 정결한 상투머리를 좋아하는가 싶으면 산발한 머리를 좋아하고, 심석전(沈石田)의 수목화를 좋아하는가 싶으면 램브란트의 유화를 좋아하는, 아! 천하에서 가장 다예한 자, 그가 바로 진화의 신이지.” 나카에 초민, 『삼취인경륜문답』, 126~127쪽.

75 나카에 초민, 『삼취인경륜문답』, 125~126쪽.

는 이러한 유토피아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당시 담론장에서 유력한 입장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아마모토는 군비 확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향후 중국과의 전쟁에서 해안을 포격하고 본토를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속전속결로 베이징을 격파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할 정도로 강경론자다.⁷⁶ 그는 이 유토피아주의에 동조할 개연성이 가장 낮은 사례(the least-likely case)인데도 이 주장의 지지자임을 자처한 것이다. 상비군 혹은 전쟁 폐지론은 군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더불어 당대에 상투적일 정도로 자주 언급되어온 또 하나의 입장이었다. 앞 세대의 계몽사상가인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는 1873년 「아메리카지(志) 서문」에서 “천하에 방국(邦國)의 이름이 없어져 억조의 백성이 모두 하나의 공법 아래에서 통솔되면 사람마다 편안히 자신의 생명, 복리를 향유하고 서로 보기를 같은 고향 사람처럼 할 것이며 전투를 영원히 종식할 것”이라며 전쟁 폐지를 기대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히려 수백 년 후의 일이다. 어찌 우리가 보고자 한다고 가히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썼다.⁷⁷

아마모토의 글은 담론장의 동일한 구속력이 1880년대 후반까지 존속했다는 증거다. 구상 자체에 대한 지지를 전제하되, 현실 가능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상투적 패턴이 가장 의외의 텍스트인 『일본군비론』에도 반복된다는 사실은, 당대의 여타 군비담론에도 이러한 전형성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조민이 양학신사를 등장시킨 것은 당시 군비담론장에서 엄연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비군 철폐의 유토피아주의에 원론적으로 공감을 표하되, 이것이 자신의 당면 정책론에서 어찌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남해선생이 양학신사의 논변을 “서운”이자 “길조”라고 하여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내린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양학신사

76 山本忠輔, 『日本軍備論』, 7~8, 39, 57~58쪽 등.

77 中村正直, 「米利堅志序」, 大久保利謙 編, 西周 外, 『明治文學全集 3: 明治啓蒙思想集』, 筑摩書房, 1967, 291~292쪽.

는 상비병 폐지라는 유토피아주의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중간 장치인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두 사람은 상비병을 폐지함으로써 전쟁이 소멸된다면 이것의 탁월성에는 수긍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유토피아론의 아름다움에 감탄한다는 점, 이것이 먼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점, 그리고 시대를 비판할 수 있는 준거가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런 점에서 야마모토와 조민은 군대폐지론을 일종의 북극성으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야마모토와 조민이 자기 시대의 문제를 실로(失路)가 아닌 풍랑으로 보았기 때문에, 북극성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그렇다면 이 ‘북극성’을 대신하여 『일본 군비론』에서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선택해야 할 새로운 참조체계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다음 절은 이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5. 시세의 분석과 정책론

야마모토가 우호적으로 인용하는 몰트케의 국회 연설은 이 새로운 참조체계가 무엇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과연 어떠한가. 태평의 조짐(兆)을 점차 상비병을 해체하고자 하는 것은 후세에 희망해야 할 바지만, 오늘날 시행해야 할 바는 아니다. 우선 오늘날은 점점 병비를 엄히 하여 무력으로 유럽의 태평을 보호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 눈을 돌려 프랑스의 형세를 보라. 정권을 쥔 자는 위풍당당한 무장(武將)이다. 파리의 인기(人氣)를 고찰하건대, 정부든 인민이든 불문하고 조야(朝野)가 공히 비상(非常)한 뜻을 품으니, 포게젠 산맥⁷⁸ 바깥의 형황(形況)은 단지 국욕(國辱)을 설욕하는 것만을 자기 소임으로 삼는다. 때

78 Vogesen.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산맥으로, 프랑스어 명칭은 보주(Vosges) 산맥이다.

를 기다려 용비(勇飛)하고자 하는 세(勢)가 아닌가.⁷⁹

“장래”를 감안한 대책을 마련하기에 “태평의 조짐”은, 마치 남해선생이 말한 “서운”과 “길조”가 그러하듯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형세” 혹은 “세”뿐이다. 로저 에임스(Roger Ames)에 따르면 세(勢)는 ① 상황, ② 배치, ③ 힘, ④ 전략적 이점 등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항상적 가변성을 함축하되 특정 시점에서 객관적 상황을 나타내기도 한다.⁸⁰ 흥미로운 점은 세가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고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하는 한편,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외부 조건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이다.⁸¹ 야마모토의 『일본군비론』에서도 세는 많은 경우 자기 시대에 일시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곧 변할 수도 있는 객관적 외부 상황을 의미한다. 이 상황이란 표면적 평화를, 이 상황의 변화란 전쟁의 발발을 의미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세는 일본에 의해 변화시키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일본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⁸²

예컨대 야마모토는 다른 곳에서도 “지나, 일본과 같은 나라는 저들이 가장 기대하는 곳이다. 하물며 유럽 여러 나라의 거친 파도는 점차 장차 가까운 나라에 침투하려고 하는 세에 있어서라”⁸³라고 하여 세를 자기 시대에 한하여 나타나는 객관적 정황이자, 전쟁 가능성을 잉태한 상황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또, 그는 “내가 평화로운 오늘날에 병비를 이야기하는 것도 세가 어쩔 수 없는 바다”⁸⁴라고 하여 군사 문제라는 부정적 소재를 다루는 것이 자신의 호전성 때문이 아니라 정황에 의한 불가피성 때문이라고 정당화

79 山本忠輔, 『日本軍備論』, 3쪽. 원문에는 이 인용문 전체에 강조점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했다.

80 이러한 분석은 Roger T. Ames, *The Art of Rulership: A Study of Ancient Chinese Political Though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4, pp. 65~107; Sun-Tzu, *The Art of Warfare*, pp. 71~83를 참조한 것이다.

81 Roger T. Ames, *The Art of Rulership: A Study of Ancient Chinese Political Thought*, pp. 75, 93.

82 따라서 세에 대하여 인간 행위자의 통제 가능성의 발휘를 중요시한 라이 산요(賴山陽)와 같은 논법은 여기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濱野靖一郎, 『賴山陽の思想: 日本における政治学の誕生』, 東京大学出版会, 2014, 102~113쪽.

83 山本忠輔, 『日本軍備論緒言』, 5쪽.

84 山本忠輔, 『日本軍備論緒言』, 6쪽.

하기 위하여 세를 동원했다. 아마모토가 상비병 폐지 등의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하고, 미래의 실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상황에서, 군비 확장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상한 특수성을 규정하고 이 예외적 상황만을 설명하기 위한 고유한 방식이 필요했을 것이다. 세는 역사적 진보 혹은 발전을 기대하는 계몽사상 담론의 설득력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분석하는 대상에 한해서는 이 담론의 적용 가능성을 빗나가게 하는 적합한 소재였던 것이다.

따라서 세의 분석은 양학신사가 보여준 역사적 발전의 일반 법칙이 현실에서 무용하다고 파악한 조민도 중시했다. 이는 『삼취인경륜문답』에서 남해선생의 다음과 같은 발화에 드러난다.

신사군은 민주제도를 채용하고 적대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군비를 철폐하여, 유럽인을 뛰어넘음으로써 앞질러 그 공격을 막아내자고 하네. 호걸군은 외국에 많은 정벌군을 보내어 타국을 할취하여 영토를 넓히고, 유럽의 동란에 끼어들어 큰 이익을 거두자고 하네. 이는 양쪽 다 유럽 여러 나라의 형세를 좀 지나치게 염려한 데서 나온 생각일세.⁸⁵

여기서 조민은 남해선생의 입을 빌려 양학신사와 호걸군의 “얼음과 솥처럼 양립할 수 없는 듯”한 “적극론과 소극론”⁸⁶은 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학신사와 호걸군은 남해선생에 비해 일반화된 논의에는 능하지만, 당면 사태의 일시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을 잘못 읽는다면 의미가 사라진다.

조민의 남해선생은 자기 시대를 직선적인 진보의 도상에서 파악하길 거부한다는 점에서 후쿠자와의 『통속국권론』과 유사하지만, 양학신사와 호걸군의 대외적 위기의식을 무너뜨리는 형세 분석에 의하여 전혀 다른 정책적

85 나카에 초민, 『삼취인경륜문답』, 133쪽.

86 나카에 초민, 『삼취인경륜문답』, 133쪽.

결론을 제시했다. 그의 형세 분석은 ① 프랑스-프로이센의 군비 경쟁은 두 나라 형세가 절박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군비 경쟁의 고유한 모멘텀에 의해 초래된 현상일 뿐이고, ② 프랑스, 프로이센, 영국, 러시아가 힘으로 세력균형을 성립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국제법을 포함한 “도덕주의”가 확장되고 있으며, ③ 국가라는 복잡한 집합체가 움직이는 데에는 번거로운 절차가 많기 때문에 강대국의 침략주의가 제어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⁸⁷ 남해선생은 이러한 “유럽의 형세에 대한 지나친 염려”만이 아니라 중국이 일본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어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파악하는 것 역시 “실정(實情)”을 보지 못하고 “유언비어”를 그대로 믿는 데서 비롯된 오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⁸⁸ 형세에 관한 남해선생의 주목은 조민이 1888년 다수의 논설에서 유럽의 정세를 분석하는 논설에 주목한 이유를 설명해준다.⁸⁹

야마모토의 『일본군비론』이 조민과 상당 부분 전제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군비의 확대라는 정반대의 정책론으로 귀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형세 분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 열국의 형세를 눈여겨보라. 외면은 서로 평화롭고 무사한 듯하지만 안으로는 음모로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각각 안에서는 무성하게 군비를 엄히 하여 만약 정부의 명령을 내는 데 당하여서는 금세 국경에 출병하는 주된 뜻은 잠시도 게을리 하는 일이 없다. 그 정태는 흡사 불을 질러 한 번의 북풍을 기다려서 금세 검은 연기가 가득하여 맹렬한 큰 불이 되는 세와 같다. 이를 가지고서 장래를 생각할 때는 유럽 열국은 아침저녁으로 무기[干戈]가 파열(破裂)하고 말굽이 중원(中原)을 짓밟을 기약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⁹⁰

87 나카에 초민, 『삼취인경륜문답』, 133~136쪽.

88 나카에 초민, 『삼취인경륜문답』, 136~138쪽.

89 예컨대 “유럽 어느 나라의 일을 논하건 간에 그 세는 프랑스 혹은 독일의 일로 점철되지 않을 수 없다.” 中江兆民, 「西班牙国」, 松本三之介 外編, 『中江兆民全集』 第11卷, 岩波書店, 1984, 304쪽; “19세기 오늘날 큰 문제는 실로 오스트리아의 형세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中江兆民, 「奥地利国」, 松本三之介 外編, 『中江兆民全集』 第11卷, 332쪽.

90 山本忠輔, 「日本軍備論緒言」, 4쪽.

표면적으로 침략주의 일변도로 보이는 유럽도, 정확한 형세 분석에 의하면 본질은 도의주의가 확장되어가는 공간이라는 것이 조민의 분석이었다. 그러나 야마모토는 유럽이 “외면은 서로 평화롭고 무사한 듯”하지만 “안으로는 음으로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여, 진정한 형세를 뒤집어서 규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프랑스-프로이센의 경쟁에 대해서도 조민과 정반대의 분석을 제시했다.

프랑스가 상비병을 늘리는 일이 있으면 독일 역시 병원(兵員)을 증가하자라는 의론을 국회에 내놓는 것과 같이 감히 이를 갑작스럽게 하지 않으니 실로 독일 국회의 결의 여하는 열국의 치안(治安)에 관계하는 바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프랑스, 독일 양국은 밤낮으로 탄환, 우석(雨石) 사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때라는 것은 거의 세상 사람이 의심하지 않는 바여서 과연 프랑스, 독일 탄환과 검은 연기 사이에서 자웅을 결정하는 때는 유럽 전토의 동요를 가져오는 때일 것이다. 따라서 유럽 전토의 동요는 또한 동양 다사(多事)의 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 일본과 같은 나라는 유럽 대륙과 땅이 몇 천 리 떨어져 있으나 저 동요는 우리 두상(頭上)에 과급하는 까닭은 그 대세에 제약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럽의 평화무사(無事)한 때는 동양도 역시 어떠한 공(功)을 얻는 것임을 알 수 있다.⁹¹

야마모토는 유럽에서 언제 발발할지 모를 전쟁이 곧 동양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유럽에서 군비 경쟁을 하면서 누적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향후 아시아 지역을 침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⁹² 그렇다면 침략에 노출된 동양의 형세는 어떠한가? 이에 대한 야마모토의 분석은 조민과는 정반대다.

91 山本忠輔, 『日本軍備論』, 13~14쪽.

92 山本忠輔, 『日本軍備論緒言』, 5쪽.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한다.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나는 입술과 이의 관계에 있는 나라로, 여러 원인으로 인해 우리를 원수로 보는 것 같다. 즉, 일찍이 타이완의 정벌, 류큐의 폐번치현, 조선 및 나가사키의 소동을 빚어 저들에게 충분한 치욕과 손해를 주었으므로 지나는 아침저녁으로 이 치욕과 손해를 우리나라를 향하여 갚으려는 큰 움직임이 있으니 세가 어쩔 수 없는 바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오늘날 애매하게 우리를 대하는 것은 필경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리라.⁹³

이러한 대조는 야마모토의 정책론적 결론이 조민과 보여주는 차이에 조응한다. 남해선생의 눈에 군비의 양적 변화는 효과적 방어를 달성하기 위한 진정한 변수가 아니었다. 따라서 조민은 남해선생의 입을 빌려, 전 국민을 동원한 일종의 게릴라 저항만으로도 “아시아 각국의 군대는 침략하고자 할 때는 불충분해도, 방위하기에는 얼마든지 충분”⁹⁴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만약 그들이 다른 나라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제법도 신경 쓰지 않으며 의회의 논의도 무시한 채 부정한 마음으로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그저 있는 힘껏 저항하고, 국민 모두 병사가 되어 때로는 요새에서 지키고, 어떤 때는 불시에 공격하고, 진퇴출몰하여 변화를 예측할 수 없게 할 걸세. 상대는 손님이고 이쪽은 주인이며 상대는 불의이고 이쪽은 정의이니, 우리 장교나 병졸이 적개심을 점점 격렬하게 불태운다면 어찌 방어하지 못할 리 있겠는가.⁹⁵

남해선생의 이 결론이 조민의 본심이기도 하다는 점은, 조민이 1888년에 「토착병론」을 저술하여 “상비군을 폐하고 토착병(土著兵)을 두자는 설”을 발표했다는 사실로도 증명된다.⁹⁶

93 山本忠輔, 「日本軍備論緒言」, 5~6쪽.

94 나카에 초민, 『삼취인경륜문답』, 135쪽.

95 나카에 초민, 『삼취인경륜문답』, 136쪽.

96 中江兆民, 「土著兵論」, 松本三之介 外編, 『中江兆民全集』 第11卷, 岩波書店, 1984, 142~152쪽.

그러나 이러한 조민의 독특한 발상은 아마모토의 비판을 피해 가지는 못한다. 아마모토는 대규모의 상비군이 없더라도 국방에 근본적인 문제를 겪지 않는 나라로 미국을 지목하면서, 유독 미국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열거했다. 첫째, 미국은 유럽 강대국의 영향력이 투사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으며, 둘째, 일반 군인이 유사시에 무장할 수 있는 훈련이 진행되며, 셋째, 무기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다가, 넷째, 해안 방위를 위해 다수의 군함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이다.⁹⁷ 따라서 미국과 조건이 다른데도 이를 함부로 모방하다가는 후회하게 된다고 아마모토는 경고하였다.⁹⁸

아아, 일본과 같은 나라는 유럽 강국과 수백 리 떨어져 있지만 이웃에 가까이 지나, 조선 및 서북 일대의 바다를 경계로 하여 러시아가 있으니, 역시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서 논할 수 없다. 하물며 국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국욕(國辱)을 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데 있어서라. 특히 지나와 같은 나라는 지난번 타이완, 류큐의 일이 있는 이래 분노의 감정을 품었으며, 조선과 같은 나라도 실로 동양 미증유의 대사로서 거의 포연(砲煙)의 영역으로 나아갈 세였지만, 일의 파열에 이르지 않아 평화로 끝을 맺었으니 양국의 행복이라고 할 만하다. 독일국의 석학 블룬칠리 씨(즉, 만국강화[媾和]협회 주창자의 한 사람으로 4, 5년 전에 사망했다⁹⁹)가 말하기를, “국가상비군의 인원수는 국가의 위치와 이웃나라와 상관되는 상황에 따라 그 많고 적음을 낳는 것이다”라고 했다. 세운(世運)의 전변(轉變), 치란의 계기는 순간적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웃나라와 대치하는 병비 확장 등이 단지 목전의 위급이 아니라고 하여 어찌 완만하게 의탁할 수 있겠는가.¹⁰⁰

위에서 일본의 객관적 상황은 첫째,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위협에 취약하며, 둘째, 국력이 약하며, 셋째, 주변 강대

97 山本忠輔, 『日本軍備論』, 111~112쪽.

98 山本忠輔, 『日本軍備論』, 112쪽.

99 블룬칠리(Johann Casper Bluntschli)는 1881년 10월 21일에 사망했으므로 실제로는 이 글이 출간되기 7년 전에 사망했다.

100 山本忠輔, 『日本軍備論』, 112~113쪽.

국이 일본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다는 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궁극적으로 조민과 같은 논자와는 세계적, 지역적, 일본 일국적 수준의 세의 분석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군비론』에서 세의 개념은, 마치 전쟁에 관한 부정적 상투어가 그러했듯이, 야마모토가 자기 논의를 당대 군비 담론과 접속시켜 형태와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 개념은, 당대에 통용될 수 있는 형태의 논리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여 직관적으로는 거부감을 살 수 있는 군비확장론을 관철시킬 설득력을 높이는 역할도 했다고 할 수 있다. 야마모토는 단지 세를 분석하는 내용을 조민 등의 논자와 다른 방식으로 채워넣음으로써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세는 야마모토가 담론장 내 경쟁자들과 연속되는 측면은 물론, 그들과 단절되는 측면을 함께 표시하는 지점이었던 것이다.

6. 결론

이 글은 상대적으로 생소한, 그러나 당대 거물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한 야마모토 주스케의 『일본군비론』을 분석한 것이다. 이 텍스트가 1880년대 후반 군비담론과 어떤 식으로 접속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이 글은 우에키 에모리의 담론들과 비교해볼 때, 전쟁과 군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전제로 하면서도 그 필요성을 입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높다. 그러나 『일본군비론』은 전쟁과 군대의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정치 사회 이전 혹은 외부의 가치에 호소하지 않고, 국가의 영토적 통합성과 국제적 위신을 회복할 필요에 호소한다는 차이를 보였다. 또, 인민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인민을 각성시키기 위한 계기로서 전쟁이 긍정된다는 점에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논의를 계승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야마모토의 저작은 나카에 조민의 『삼취인경륜문답』과 비교했을

때, 상비병 폐지라는 유토피아주의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에서의 지침을 세우는 데에 이것이 참조체계로서 무용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였다.

셋째, 『일본군비론』은 『삼취인경륜문답』과 마찬가지로 유토피아 구상이 아니라 당대의 세(勢) 파악에 의해 정책론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지녔다. 그러나 『삼취인경륜문답』에서 전쟁에 관한 한 세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상비군 폐지론을 제안한 데 반해, 『일본군비론』은 세계적-지역적-일국적 차원의 세를 모두 위태로운 것으로 파악하여 군비 확대를 주장하는 결론을 도출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일본군비론』이 당대에 입장들과 어떤 식으로 친화성 내지는 경쟁 관계를 형성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전쟁을 그 자체로는 부정적으로 전제하고 이를 예외적으로만 정당화하려는 담론의 구성 방식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구성 형식을 공유하되 내용을 어떻게 채우는가에 따라 조민과 같은 상비군 폐지론 및 토착병론, 우에키와 같은 제한적 군비론 및 군통제 합리화론, 야마모토와 같은 군비확장론 등을 전개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일 정부의 정책 결정 그룹과 구분되는 『아사히신문』의 사설 논조의 한 기원은, 이러한 민간 담론장에서의 교류에서 자라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이러한 작업은 우에키 에모리나 나카에 조민과 같이 잘 알려진 사상가의 발화 행위가 당대의 담론장 맥락 안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였는지를 더욱 정교하게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예컨대 메시지에 관한 한 수수께끼가 많다고 간주되는 『삼취인경륜문답』에 관하여, 이 글이 일부 연구자의 지적과는 달리 양학신사의 논의가 비저항적 평화주의나 군비 폐지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당대의 군비론 맥락 안에서 볼 때, 양학신사는 남해선생의 형세론과 군비 불가피론의 정당성을 논증하기 위한 중간 장치로서 표상되었다.

이러한 고찰은 메이지 시대 담론 공간의 지형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공유되던 정치철학적 질문과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금

까지 조명되지 않은 텍스트의 내적 논리를 해명하고 이 논리가 주요 사상 담론과 맺는 연결점과 단절점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함의는 그것이 전제하는 다음과 같은 통찰을 재확인하는 역할 역시 수행할 것이다. 즉, 메이지의 담론 공간은 자기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적의 논리와 함께 호흡하고, 그럼으로써 적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자기 사유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이중적 행위의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